

Mitsubishi, PTA 60만톤 중국투자

Itochu상사 및 중국기업 합작으로 ... BP와 아시아 시장 2등분 포석

일본기업 사상 최대규모인 화학제품의 중국투자가 실현될 전망이다.

Mitsubishi Chemical과 Itochu상사는 최근 Mitsubishi상사, 중국 현지 투자기업과 손을 잡고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60만톤 플랜트를 2006년까지 중국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투자총액은 약 333억엔으로 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일본기업 전체 중에서도 10위 안에 드는 대형 설비가 될 전망이다. 일본 화학 메이커는 최근 활발히 중국에 진출하고 있으나 현재는 중소규모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PTA에서 Mitsui Chemicals이 최근 인허가 신청을 제출하는 등 요즘 들어 대형 프로젝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Mitsubishi Chemical, Itochu상사가 주도한 PTA 프로젝트를 필두로 유럽·미국에 비해 뒤쳐진 감이 있는 일본기업들이 중국시장을 둘러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Mitsubishi Chemical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PTA 프로젝트는 浙江省 寧波市の 공업지구에 PTA 60만톤 플랜트를 2006년까지 완공해 9월부터 영업을 개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최종적인 사업화 계획서를 중국 당국에 제출해 빠르면 6-7월에 인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Mitsubishi Chemical, Itochu, Mitsubishi상사가 우선적으로 일본 투자회사 <寧波PTA투자>를 설립하고, 일본투자회사와 중국 출자자인 中國中信集團(CITIC)이 사업주체 <寧波 Mitsubishi Chemical 유한공사>를 합작해 발족시킨다.

일본 투자회사의 출자비율은 Mitsubishi Chemical이 61%, Itochu상사 35%, Mitsubishi상사 4%이다. 또 중국 합작회사의 출자는 일본이 90%, 중국이 10% 비율로 정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Polyester 생산 급증으로 PTA 수요가 연평균 10% 정도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전체의 5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합작회사는 원료 P-X(Para-Xylene)를 수입하고, 생산제품은 전량 중국에서 판매한다.

Mitsubishi Chemical의 PTA 사업현황(2003)

(단위: 1000M/T)

구 분	QTA	PTA	비 고
한 국	1,200	300	
인디아		470	
일 본	250	140	
중 국		600	2006년
인도네시아		640	
합 계		3,000	

Mitsubishi Chemical 등은 소비지역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華東지구인 점, 좋은 항만환경으로 원료 조달에도 유리하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寧波 투자를 결정했다. 또 건설하는 플랜트는 Mitsubishi Chemical의 기술에 의한 1계열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최신에 플랜트로, 건설비나 운영경비(Running Cost)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Mitsubishi Chemical은 PTA를 석유화학의 최대 중점사업으로 규정하고 소비입지에서의 생산전략으로 일본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한국, 인디아 등에도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Mitsubishi는 세계, 아시아 모두 BP에

이어 2번째로 큰 점유율을 획득하고 있다. 여기에 최대 수요지인 중국을 포함시킴으로써 아시아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 PTA에 이은 Phenol계나 C4계에서도 대형투자를 검토중이어서 기존의 가공사업 주체에서 중국 비즈니스 전략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Itochu상사도 중국사업 전개를 최대 주력분야로 삼고 있다. 원래 PTA 취급으로는 상사 1위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가공 섬유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Mitsubishi Chemical의 기술력과 Itochu의 판매, 정보력 등을 융합시킴으로써 수요확대와 함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우위성을 발휘해나갈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4/04/21>